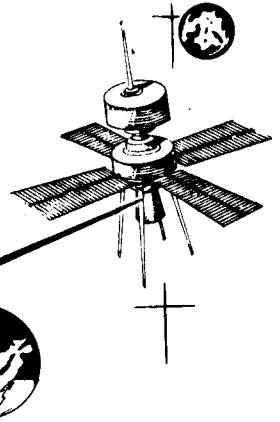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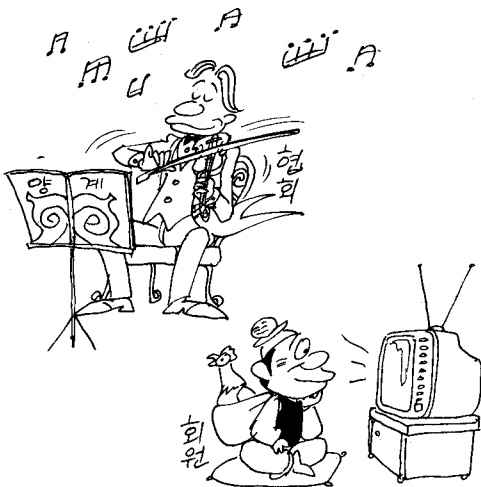


안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대화 수단 으로서의 말



○이익집단의 대변자로서의 협회

금년에 들어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을 받으면서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소속된 국민이라는 집단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국가가 한 민족을 구성원으로 그 민족의 안녕 보호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나라들은 잡다한 종족이 모여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는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도덕성을 결여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나 최근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과 같은 부당하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나 아편전쟁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협회의 기능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구성원인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도덕성을 결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한 나라가 잡다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듯이 협회도 규모, 시설, 위치, 연령은 물론 기타 복잡한 회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협회는 회원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원의 무관심이야말로 적극적인 반대보다 더욱 큰 반대이며 협회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 다양한 산업사회 이익사회에서 협회의 기능이야말로 중요하며 그러한 면에서 국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한 것이다.

정부의 각 부처도 자기가 속해있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상공부가 상공인을 제쳐두고 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한다면 년센스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서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계산물을 생산하려는 것도 소비자 보다는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양계업자에게 이익이 오기 때문인 것이다.

○협회내에서의 대화의 광장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회원의 협회에 대한 무관심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대개 가 대화의 부족에서 기인하게 된다.

말이란 참으로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이기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한 마디의 말이 사람을 웃기고 울리며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한다.

말의 위력에 대해서는 이번 양대선거에서 선거에 직접 관여해 본 사람이면 실감할 것이다.

전세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이 창조되고 운행된다고 믿으니,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 그 능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대통령의 한 마디는 곧 대통령령이 되는 경우가 있듯이 말을 조심하라는 속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판사의 한 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말이다.

그간 10년동안 필자는 「월간양계」 안테나난을 통하여 많은 말을 하여 왔다. 스스로 양계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도덕성을(상대적인 것이지만) 결여하지 않으면서 회원간의 대화와 회원과의 대화를 위하여 많은 말을 하여 왔다.

그 말이 한 말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었는 지를 생각하면 두려울 뿐이며 개중에 잘못된 것들은 독자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신데 그저 감사할 뿐이다. 책이 발행·배부된 후 많은 독자들로부터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할 뿐이다.

다만 필자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여 아직도 많은 독자가 무관심하지만 이는 글이 아닌 다른 방법의 대화로 해결하려 해야 하였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이번달로 안테나의 필자가 바뀝니다.

그간 애독하여 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형편에 의하여 지금은 양돈협회에서 근무하게 되었지만 양계협회 재직 동안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다음호부터는 본지 편집위원들이 집필하게 됩니다. 배전의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기**